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2

▶ 83회 예고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보드가야로 가면서 우빠굽따 장로에게 설법을 듣는다. 태자는 웃따까 라마뿟다 선인과도 헤어진다. 선인들에게 실망한 태자는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우루웰라 부근의 고행림 아자빨라나무 밑에 갈대를 깔고 앉는다.



아쇼까왕, 보드가야를 순례하다

빠딸리뿌뜨라성에 붉고 흰 부겐빌리아 꽃이 지천으로 피었다. 안개가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건기가 돌아왔다. 호위대장은 아쇼까왕 일행을 경호하기 위해 군사들을 밤낮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왕에게 순행준비 결과를 보고했다.

"대왕코끼리는 잘 훈련돼 있습니다. 대왕님의 일산도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황금과 은, 수정이 박힌 일산은 아쇼까왕만 쓸 수 있었다. 보석으로 장식한 일산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 황금과 수정이 햇살에 반짝였으므로 멀리 있는 백성들도 왕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숙였다.

그때 룸비니로 미리 정찰을 나갔던 기마대장이 아쇼까왕 집무실로 들어왔다. 기마대장은 마우리아국 변방에 분쟁지역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조장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룸비니를 다녀온 길이었다.

"대왕님이시여, 룸비니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사정은 어떻소?"

"룸비니는 한적한 동산입니다. 고따마 붓다께서 태어나신 곳에는 살라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마야부인이 목욕한 뿌스까르니(Puskarni)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이니까 산기를 느낀 마야부인이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셨겠지."

"가지고 가실 석주는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기마대장이 보고한 석주는 부드러운 사암 재질이었으므로 글씨를 음각하기에 용이했다. 아쇼까왕이 룸비니에 들르면 순례기념 행사 일환으로 칙령을 새길 계획이었다. 아쇼까왕이 현지에 가서 지시할 칙령의 글씨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브라흐미(brahmi)문자일 터였다.

"대장, 순례지를 바꾸려고 하오. 나는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룸비니보다 태자께서 붓다가 되신 보드가야부터 순례하고 싶소."

"무슨 이유 때문이십니까?"

"붓다가 되신 곳이 어떤지 더 궁금하오. 그러니 대장은 보드가야를 정찰하고 오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은 기마대장이 나가자 이번에는 경비대장을 시켜 아쇼까라마에 있는 우빠굽따를 불렀다. 우빠굽따는 즉시 경비대장 안내를 받아서 아쇼까왕 집무실로 왔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장로시여, 나는 보드가야로 갈 것이오. 싯다르타 태자가 어떻게 붓다가 되었는지 그 현장을 순례하고 싶소."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저도 대왕님께서 싯다르타 수행자께서 붓다가 되신 성지를 먼저 가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잘 되었소."

"싯다르타 수행자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 삡팔라(Pipphala)나무부터 참배하셔야 합니다. 룸비니에서 보드가야까지는 싯다르타의 수행자시대이고, 보드가야에서 열반하신 꾸쉬나가라까지는 고따마 붓다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소. 나는 싯다르타 시대의 이야기보다 붓다께서 어디서 깨닫고 또 무슨 가르침을 설했는지 알고 싶소. 나는 '담마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순례하는 것이오."

"대왕님께서 순례하신 곳마다 불탑을 세우시면 붓다에 대한 믿음과 공경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오. 불탑을 세운다면 장차 태어날 백성들도 붓다에 대한 신심과 존경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난 기쁨을 스스럼없이 말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적(敵)도 없으며, 잠부띠바(인도)의 모든 성(城)과 산, 바다를 얻고 모든 부(富)가 내 앞에 있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소. 그보다는 앞으로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일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뿐만 아니라 나는 장로와 함께 순례하는 동안 깊은 공경과 믿음이 생겨날 것만 같소."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이 순례를 하는 동안 확실한 '담마의 실천자'가 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순례준비는 건기 중반 무렵에 마무리되었다. 룸비니로 가려다다가 보드가야로 순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 아쇼까왕의 순례는 시찰 성격을 띤 순행과 달랐다. 순례일행 중에는 왕비 아상디밋따와 띠쉬아락시따도 들어 있었다. 정비는 아상디밋따였다. 마힌다 비구와 상가밋따 비구니도 순례에 나섰다. 아쇼까왕의 사위 악기브라흐마 비구와 외손자 수마나 비구까지 동행했다.

마침내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빠딸뿌뜨라 내성을 나와 남쪽으로 향했다. 보드가야로 가는 길은 이미 보병 수만 명에 의해 잘 닦여 있었다. 주요 도시로 가는 길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길은 큰 수레 서너 대가 교행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아쇼까왕은 우물이 있는 큰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자, 이동법당 수레로 가서 우빠굽따가 설하는 법문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고따마 붓다의 일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했다.

"대왕님이시여, 싯다르타 태자는 백마 깐타까를 타고 까삘라성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많은 중생이 삶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한가.
나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동법당 수레 앞에는 순례일행 모두가 모여 있었다. 아쇼까왕은 물론 왕비와 마힌다와 상가밋따 등 사문들과 군사 대장들이 우빠굽따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경계를 서는 군사만 들판 멀리 있을 뿐이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백마를 타고 밤새 동쪽으로 달렸다. 새벽에야 어느 숲속에서 멈추었다. 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바로 내가 바깥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곳이고,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며, 사랑하는 깐타까와 헤어질 수 있는 곳이구나.'

태자는 곧 마부 찬다까에게 모자에 달린 푸른 마니보(摩尼寶)를 떼어주면서 말했다. 마니보는 태자임을 증명하는 보석이었다.

"이 마니보를 가지고 가거라. 돌아가서 부왕께 마니보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려라. '태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미 다 버렸으며, 또한 천상에 태어나려고 선업을 쌓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바른 길을 몰라 헤매면서 생사윤회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출가합니다. 나는 아직 젊지만 생로병사에는 정해진 때가 따로 없으며, 지금 젊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훌륭한 왕들은 나라를 내놓고 길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뒤 수행 도중에 세속 생활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 결심도 그와 같아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결심을 부왕께 전해라."

태자는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들을 떼어 양어머니인 이모와 아내 아쇼다라에게 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찬다까가 울면서 돌아가자, 태자는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도 왕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보석을 때어낸 옷이라지만 수행자의 누더기에 비해 깨끗했다. 그래서 태자는 자신의 옷을 벗고 해진 옷과 바꾸어 입으려고 했다. 마침 사냥꾼이 나타나자 태자는 그의 낡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

남루한 옷으로 바꿔 입은 태자는 누가 보아도 숲속에서 정진하는 수행자 같이 보였다. 태자는 스승을 찾아서 계속 길을 걸었다. 이윽고 태자는 강가강 지류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 베샬리에 머물고 있는 박가바 선인을 만났다.

그런데 고행주의자 박가바 선인을 추종하는 브라흐민 출신의 수행자들은 태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기행과 고행을 일삼고 있었다. 태자가 박가바 선인에게 물었다.

"선인이시여, 무엇 때문에 고행하고 있습니까?"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 고행하고 있습니다."

태자는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다. 밧지족이 살고 있는 미띠라성에서는 양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선인도 있었다.

"선인이시여, 왜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다음 생에 복을 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태자는 그들에게 살아 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악행이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 중에 한 선인이 해탈을 구하는 태자의 마음을 간파하고, 베샬리 교외에 알라라 깔라마 선인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하여 태자는 그곳을 떠났다.

실제로 베샬리 교외에는 알랄라 깔라마 선인이 제자 3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태자는 그의 명성을 이미 듣고 있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밧지족의 일족인 릿차비인들의 도읍인 베샬리 부근의 숲은 수행자들이 모여들어 사는 곳이었고, 강가강 남쪽의 옛 마가다국 사람들과 달리 황색인종인 샤까(석가)족 사람들과 외모가 비슷했다. 태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수행주의자 알라라 깔라마의 제자들은 스승과 그의 동료들에게 알렸다.

알라라 깔라마도 태자를 환영했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한 뒤 스스럼없이 대화했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가 선정에 들어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알라라 깔라마는 다른 교단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수행과 제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탁발이 아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의식주를 해결했다. 태자를 만난 알라라 깔라마의 나이는 120세였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말했다.

"깔라마시여, 나는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싶습니다."

"여기 머무르시오. 그대와 같은 지혜로운 수행자가 우리와 같이 수행한다면 머잖아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것이오."

과연 태자는 그곳에 머무른 지 얼마 후 선정을 얻었고, 그 경지를 알라라 깔라마에게 말했다. 그러자 알라라 깔라마는 자신이 깨달은 무소유처(無所有處)라는 선정을 가르쳐 주었다. 무소유처란 무집착처란 말과 같은, 마음 안팎으로 무념무상의 고요한 경지를 말했다. 태자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무소유처마저 도달했다. 그러자 알라라 깔라마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와 같은 수행자를 이 늙은 나이에 만나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소. 내가 수행하여 얻은 진리를 그대도 얻었소.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소. 앞으로 이 교단의 수행자들을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가르칩시다."

알라라 깔라마의 말은 교단에서 자기와 같은 스승으로 태자를 예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태자는 무소유처 경지에 만족할 수 없었다. 무소유처는 생사윤회를 해결하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태자는 알라라 깔라마의 제의를 뿌리치고 다시 길을 떠났다.〈계속〉

